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 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지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1. 문제 제기
2.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3.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주요 내용

▶ 최근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한의 무역과 투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역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액도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008년도 대북원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감소의 주원인은 대북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대비 65.8% 감소하였고, 아직 한국을 대체할 지원국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핵진전 등 북한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1: 북·중 경제협력의 한층 강화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 상황전개 2: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 전개

○ 상황전개 3: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악화

▶ '상황전개 1'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지난 2월 5일에 발표한 대북 무상원조 계획이 산업시설지원과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13~26%가량 증가한 51억~56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북한의 투자유치는 4억~7억 달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2'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소폭 증가하거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2009년도 대외무역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하여 45억 달러~50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투자유치 및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은 2008년 수준이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3'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가 심화되어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북 경제제재는 전면봉쇄 수준이 되어, 무역·투자유치·지원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 문제 제기

- 북한경제는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및 남북경협이 추이에 크게 영향 받음.
- 2008년도 북한의 국내경제는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남북경협은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반면, 대외경제는 무역과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경제 확대는 향후 남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북한의 2008년도 대외경제 추이를 분석하고,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를 전망하고자 함.

-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한층 심화되었고 적자규모도 증가하였음.
- 2008년 북한의 대EU 수입액은 전년대비 224%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양국의 무역총액을 전년대비 122.6% 증가시켰.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물, 철강, 석탄, 의류·부속품,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에너지, 곡물, 유류, 전기기기,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임.
-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008년 북한이 원유수입을 위해 지출한 외화총액은 증가하였음.
- 북한의 2008년 곡물수입량은 북한 내부의 곡물 생산량 증대 및 주변국들의 2·13 합의사항 이행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2. 2008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가. 무역부분

- 2008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음.
- 북한의 2008년 전체 무역액은 전년대비 약 8억 달러 증가한 44억 8,940만 달러²⁾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적자 폭은 전년에 비해 43.9%(22억 5,800만 달러) 증가하였음.

■ 중국

- 북한의 2008년 대중국 무역액은 전년대비 41.2% 증가한 27억 8,700만 달러임.
- 200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9.6% 증가한 7억 5,400만 달러이고, 수입은 49% 증가한 20억 3,300만 달러임.

표 1. 2008년 북한의 무역 현황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2008	1,116	3,373.7	4,489.4	-2,258

자료: World Trade Atlas(2009).

-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무역총액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과 EU 27개국임.³⁾

표 2. 최근 3년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468	-5.8	1,232	13.5	1,700	7.5	-764
2007	582	24.4	1,392	13.0	1,974	16.1	-80
2008	754	29.6	2,033	46.0	2,787	41.2	-1,279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2008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이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치임.

1)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자료가 매년 중반기에 출간되는 관계로 World Trade Atlas 통계자료(2009)를 이용하였음. 본 수치는 북한의 주요 12개 무역상대국(지역)인 중국, 러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대만, 알제리, 일본, EU 27개국과 북한의 무역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KOTRA에서 발표하는 북한 대외무역 규모와 World Trade Atlas에서 발표하는 북한 대외무역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World Trade Atlas(2009).

3) 중국, 러시아, 태국, 일본, EU과의 교역기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앞의 5개 교역대상국(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임.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광물, 철강, 의류, 나무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성격이 강하고,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곡물, 식용기름 등 에너지, 식품·가공식품 성격이 강함.

- 국제사회의 원자재 값 상승은 북한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량을 감소시킨 반면, 수출액은 증대시켰.

- ▶ 2008년 '광, 슬랙 및 회(HS26)'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4,870만

달러 늘어난 데 반해, 수출량은 전년보다 443만 kg 감소함.

▶ 같은 해 '철강(HS72)'의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3,320만 달러 증가한 데 반해 수출량은 전년에 비해 393만 kg 감소함.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북한의 대중국 수입에서 원유 구매에 지출하는 외화규모를 급격히 증대시킴.
 - ▶ 2008년 북한이 원유(HS2709)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에 지출한 외화총액은 4억 1,43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46.9% 증가한 금액임.
-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2008년 대중국 곡물 및 제분공업 생산품의 수입규모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음.
 - ▶ 2008년 북한의 쌀(HS1001) 수입량은 전년대비 75.3% 감소한 2만 톤에 불과하였고, 수입액은 74.2% 감소한 670만 달러에 그쳤음.
 - ▶ 같은 해 제분공업 생산품(HS11)에 대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량은 전년대비 94.2% 감소한 84만 톤, 수입액은 92.7% 감소한 260만 달러임.
 - ▶ 곡물 및 제분공업 생산품에 대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 감소는 2·13 합의에 따른 주변국들의 식량지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3. 북한의 대중국 원유 및 쌀 수입 추이

연도	원유 수입(HS2709)				쌀 수입(HS1001)			
	수입액		수량		수입액		수량	
	백만 달러	증감률	만 톤	증감률	백만 달러	증감률	만 톤	증감률
'06	247	24.7	52.4	0.2	11	-8.3	3.9	-18.8
'07	282	14.2	52.3	-0.2	26	136.4	8.1	107.7
'08	414.3	46.9	52.9	1.1	6.7	-74.2	2	-75.3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 북한의 식품조제품 및 동식물성 유지 생산품에 대한 대중국 수입액은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함.
 - ▶ 2008년 식품 조제품(HS16)에 대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4,380만 달러인 반면, 수입량은 6.5% 감소한 58만 kg임.
 - ▶ 식용유와 같은 동식물성 유지 및 분해생산물(HS15)에 대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5.9% 증가한 4,550만 달러인 반면, 수입량은 9.3% 증가한 328만 kg임.

■ EU 27개국

- 2008년 3/4분기까지 북한의 대EU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122.6% 증가한 2억 2,620만 달러임.
- 북한의 대EU 수출은 4,270만 달러이고, 수입은 1억 8,350만 달러임.

표 4. 최근 3년간 북한의 대EU 무역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196	197.0	158.0	-21.8	354.0	32.1	38.0
2007	45	-77.0	56.6	-64.2	101.6	-71.3	-11.6
2008.9까지	42.7	-5.1	183.5	224.2	226.2	122.6	-140.8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북한의 대EU 주요 수출품은 의류/부속품(HS62)과 광산품(HS25), 화학공업(생산품)(HS28)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계류(원자로, 보일러), 광학, 의료기기(HS90) 및 철강제품(HS73) 등임.
- 2008년 북한의 대EU 수출에서 가장 높게 증가한 품목은 무기 화학제품과 귀금속류(HS28)로, 전년대비 728.6% 증가함.
- 북한의 대EU 수입에서는 펄프, 폐지(HS47)가 전년대비 3,50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러시아

- 2008년 9월 말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총액은 9,010만 달러임.
-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1,050만 달러이고, 수입은 7,960만 달러임.

표 5. 최근 3년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20.1	191.3	191	-14.9	211	-8.7	-171
2007	28.1	39.8	73.4	-61.6	102	-51.9	-45
2008.9까지	10.5	-62.6	79.6	8.4	90.1	-11.2	-69.1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원자로, 보일러)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및 나무(제품), 차량(부품) 등임.
- 북한의 대러시아 전체 수출에서 기계류(HS85, HS84)가 차지하는 규모는 510만 달러(48.6%)임.
 - ▶ 기계류가 2008년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 3/4분기까지의 규모가 2007년 전체 규모의 30% 수준이며, 이의 주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석됨.

- 북한의 광물성연료(HS27), 나무(제품)(HS47, HS44, HS48), 차량(HS87), 기계류(원자로, 보일러)(HS84) 및 철강(HS72)에 대한 대러시아 수입액은 7,090만 달러(89.1%)임.
- ▶ 이중 북한의 가장 중요한 대러시아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로 수입액은 전년보다 48.2% 감소한 3,540만 달러임.
- ▶ 광물성연료의 수입 감소는 국제원유가격 상승 및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20만 톤 중유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태국

- 북한의 대태국 2008년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66.3% 감소한 7,700만 달러임.
- 북한의 대태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19.4%가 감소한 2,900만 달러이고, 수입은 75.1%가 감소한 4,780만 달러임.

표 6. 최근 3년간 북한의 대태국 무역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168	26.3	227	10.2	395	16.5	-59
2007	36	-78.6	192	-15.4	228	-42.3	-156
2008	29	-19.4	47.8	-75.1	77	-66.3	-18.8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2008년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 품목으로, 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1,690만 달러(58.3%)임.
- 플라스틱(제품), 철강, 전기기기, 음향설비(부분품), 원자로 및 보일러(기계류) 등이 북한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임.
- 북한의 2008년 대태국 주요 수입품은 곡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광물(철강, 동), 나무 및 관련제품, 기계류(전기기기, 음향설비, 보일러) 등으로, 이러한 품목들이 대태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4,100만 달러(85.8%)임.
- 태국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주요 곡물 및 가공식품 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음.
- ▶ 2008년 북한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HS10) 및 당류·설탕과자(HS17)의 총액은 2,070만 달러로, 이는 북한의 대태국 수입총액에서 43.3%를 차지하는 비중임.
- 북한이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 수량과 금액은 전년에 비해 급속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북한 내부의 공장가동률 및 생산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2008년 북한의 알루미늄(제품) 수입량은 전년대비 91.8%가 감

소한 60만 kg 수준에 머물렀고, 수입액은 98.8%가 감소한 20만 달러에 그침.

■ 미국

- 2008년 11월까지의 북한의 대미국 전체 무역액은 전년대비 2,364배가 증가한 4,190만 달러임.
- 2008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무역법 명단에서의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미 수출액은 '0(zero)'를 기록함.
- 북한의 대미 수입액은 전년의 2,364.7배 증가한 4,190만 달러임.
- ▶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식물성 생식품(HS10, HS12)과 △기계류(HS84, HS85) △차량, 항공기, 선박 및 운수설비(HS87, HS88) 등임.
- ▶ 북한의 급격한 대미수입은 2.13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통관을 거치면서 수입액에 반영된 결과로 추정됨.

표 7. 최근 3년간 북한의 대미국 무역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	-	-	-	-	-	0
2007	-	-	1.7	-	1.7	-	-1.7
2008.11까지	-	-	41.9	2,364.7	41.9	2,364.7	-41.9

주: '-'는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된 통계수치의 부재로 확인 불가(N/A)를 의미.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 북한의 대미국 무역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북한 수출산업의 낮은 가동률과 △상존하는 대북 경제제재들 때문임.⁴⁾
- 미국이 북한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제제재에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관리법과, 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브레튼우즈협정법 △수출입은행법 △무역협정연장법 △대외원조법 등이 있음.

■ 일본

- 2008년도 북한의 대일본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15.4% 감소한 770만 달러임.
- 2008년도 북한의 대일본 수출은 일본인 납치문제 미해결 및 북핵문제 등의 이유로 전년과 동일하게 전면 중단되었고, 수입은 전년대비 15.4% 감소하여 77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4) 김상기(2007),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p. 26,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은 차량(부품)과 기계류(원자로, 보일러, 전기·음향),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등임.

표 8. 최근 3년간 북한의 대일본 무역 현황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77.8	-41.19	44	-30.2	122	-37.6	34
2007	0	-100	9.1	-79.3	9.1	-92.5	-9.1
2008	0	-	7.7	-15.4	7.7	-15.4	-7.7

자료: World Trade Atlas, 각 해당년도 자료 인용.

나. 투자 및 원조

■ 북한의 2008년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 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북한의 외자유치액은 전년대비 49.5% 감소한 5,300만 달러임.

○ 2007년의 외자유치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대북 투자 리스크가 높아진 것에 기인함.

▶ 대북 투자의 상당 부분은 중국 및 화교 기업(가)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및 핵실험 이후 2007년 중국(화교) 투자자 혹은 기업에 의한 신규 대북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⁵⁾

- 북한의 2008년 외자유치액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북한 당국의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북한 내부의 소비계층 확산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북한은 휴대전화 사업 분야에서 개방을 추진키로 결정함.

▶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 통신회사가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함.

▶ 2009년 2월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000명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특수계층에서 일반계층으로까지 확대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⁶⁾

○ 북한 내에서의 사업 활성화는 외국인투자 규모의 확대 가능성

을 의미함.

표 9.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미화 백만 달러)

투자 구분	2005	2006	2007
FDI (해외→북한)	50	105	53

주: *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지칭.

자료: UNCTAD, 해당년도 자료 인용.

■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달한 원조총액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우나, 2008년 대북원조는 전년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국제사회가 지원한 2008년 대북식량 수준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한국이 지원한 수량은 43만 1,290톤으로, 이는 같은 해 국제 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에서 57.4%를 차지하는 비중임.⁷⁾

○ 한국 정부는 2000년 이후 매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30만~4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남북 관계 경색을 원인으로 차관형식의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무상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⁸⁾

○ 따라서 2008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20만 톤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표 10.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상황

(단위: 천 톤, %)

구분	2005	2006	2007
빈곤국에 대한 식량지원 총계(A)	8,285	6,961	5,935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B)	1,176	358	752
B/A	14.2	5.2	12.7

자료: KDI 북한경제팀(2008), 「북한의 주요통계」, p. 55.

표 11. 2007년 국가별 대북 식량지원 상황

(단위: 톤)

국가	지원량	국가	지원량
한국	431,290	유럽공동체	1,726
중국	292,121	캐나다	1,375
호주	8,766	덴마크	240
독일	4,169	네덜란드	64
영국	2,933	기타(UN포함)	9,668

자료: KDI 북한경제팀(2008), 「북한의 주요통계」, p. 56.

7) KDI 북한경제팀(2008).

8) 권태진(2009),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38회 정책포럼 발표문.

5) 조명철·홍익표·정승호(2007).

6) 연합뉴스(2009.2.3).

3.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가.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 전망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북·중 경제협력 수준과 북한과 주요 무역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간의 관계개선 여부 및 그 개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으로 보면, △북·중 우호·친선관계 60주년을 기념한 양국간의 교류·협력 상황, △북·태국 간의 경제협력 상황, △정치·경제·외교 분야에서 북·러 간 교류협력 정도,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여부에 따른 북·일 간 관계개선 가능성, △북·EU 간 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포함한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상황,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직접대화 시도 및 양국간 관계진전 여부와 그 정도 등이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중 관계

- 양국 수교 60주년인 동시에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된 2009년에는 북한과 중국 양국간의 교류가 어느 해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3년간 북·중 무역이 연평균 21.6% 증가율을 보인 것을 감안할 때, 2009년 양국간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규모는 과거 양국간에 취해진 투자활성화 조치 및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교류협력 활성화 계획에 힘입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북한과 중국은 양국간 투자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4년 2월 '상품 규격화 및 품질분야 협력협정', 2005년 3월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05년 10월 '경제,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였음.
 - ▶ 지난 2월 5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정부의 대북 무상원조 결정을 공식 보도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산업시설지원 및 현금지원 형태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에 대한 중국의 2009년 원조규모는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북·중 수교 60주년에 맞추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계획을 발표하고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은 6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계획을 발표한 사건들을 통해,

2009년 중국의 대북지원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북·중 간 경제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는 북·중 경제협력 규모를 축소시키는 주요한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북·EU 27개국 관계

- 2009년도 북한과 EU의 무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의 대EU 수출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북한의 EU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 시멘트(HS25) 및 철강(HS27) 등과 같은 원자재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북한의 2009년도 대EU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북한의 2009년도 대EU 수입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북한이 EU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대체로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계류(HS84, HS85)와 원자재 성격의 광물성유(HS27), 철강제품(HS73)임.
 - ▶ 기계류에 대한 북한의 수요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광물성유 및 철강제품의 수입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에 대한 EU의 투자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예상되는 반면, 지원은 북핵문제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 북한에 대한 EU의 투자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2009년도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소폭의 증감이 예상된다.
 - ▶ 대북지원의 경우,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협상이 진전되면 대폭 증대하고, 북·미 관계 개선 및 북핵협상 진전이 답보상태이면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북핵협상이 결렬되면 그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러 관계

- 2009년 북·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북핵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문제가 원활히 진전되고, 양국간 정치·경제 관계가 지속적인 협력구도 안에서 구축될 경우, 2009년 북·러 간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무역의 경우, 북한의 생산가동률이 증가되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자재 및 광물성 연료 등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 2008년 북한-러시아 간의 철도(TSR) 현대화사업 개시⁹⁾ 및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추가¹⁰⁾ 대북지원 등 양국간 일련의 경제협력 조치에 힘입어 2009년 러시아의 대북 투자 및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북·태국 관계

- 북한과 태국의 2009년 무역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태국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수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의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2009년 대태국 수입은 북한의 식량부족과 국제식량 가격 하락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2009 양곡연도¹¹⁾의 북한 자체 식량생산량은 334.2만 톤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요량은 512.9만 톤으로 178.6만 톤의 부족이 예상됨.¹²⁾
- ▶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받아 북한은 태국으로부터 곡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량을 늘릴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국제사회의 대북한 투자 및 원조에서 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년과 같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북한과 태국의 경제협력은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북·미 관계

- 2009년 북·미 관계 개선과 양국간 경제협력은 북핵문제와 양자간 직접협상 전개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경제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침체될 것으로 예상됨.
- ▶ 북핵문제가 심화되고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조치¹³⁾를 다시 원상 복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현재 북·미 경제협력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경제제재가 취해진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
- ▶ 그 결과, 양국간 무역 및 미국의 대북투자·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양자간 직접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에 응대할 경우 2009년 북·미 관계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대미 수출은 북한의 낮은 산업경쟁력과 취약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기인해 원료생산 중심의 1차 산품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미 수입은 선진 산업기술 및 전문성이 요청되는 2, 3차 산품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미국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식량 및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북·일 관계

- 2009년 북·일 관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구도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양국의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의 경우, 북한의 대일 수출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북한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정도 및 북핵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의 대일 수입은 기계 및 차량 등 선진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수입품목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북한에 대한 일본의 투자와 지원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임.
- ▶ 현재까지 일본은 6자회담에서 합의된 북한에 대한 20만 톤 상

9) 연합뉴스(2008.9.18).

10) 2008년 러시아는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 20만 톤 상당의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완료하였음.

11) 2008.11~2009.10 기준

12) 권태진(2009),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p. 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38회 정책포럼 발표문.

13) 북한은 2008년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같은 달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함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과 적성국 무역법 대상에서 제외됨.

당의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음.

-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북·일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미 국무부는 일본정부의 제안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일 기간 동안 클린턴 국무장관과 남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과의 면담일정 검토계획을 발표함.¹⁴⁾
-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양국간 무역, 일본의 대북투자 및 대북지원 규모는 양국간 관계가 정상이었던 200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 북한의 대외경제 상황전개 시나리오

■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북한의 2009년도 대외경제 규모는 북·중 경제협력 수준 및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1: 북·중 경제협력 수준 한층 강화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 상황전개 2: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 전개
- 상황전개 3: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악화

■ 상황전개 1

- ‘상황전개 1’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제한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함.
-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계획이 산업시설지원 및 현금지원 형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무역규모는 예년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는 북한의 수출입 및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북한의 무역을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것임.
 - ▶ 한편 북한의 △낮은 산업가동률, △열악한 수출상품 경쟁력, △빈약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경험 등은 북한의 무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데 제약요인임.
 - ▶ 북한의 대외무역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률¹⁵⁾을

기록한 사실을 감안할 때, 2009년도 무역총액은 예년성장률보다 다소 높은 51억~56억 달러¹⁶⁾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도 북한의 전체 투자유치 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이 북한에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20억 달러 상당의 자금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¹⁷⁾ 러시아와 북한이 TSR 사업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투자환경을 개선¹⁸⁾하고 인적자원을 개발¹⁹⁾하는 차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북·미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며, 북핵문제가 2009년 상반기 내로 타결되더라도 대북투자는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에 의해 대규모 차원에서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따라서 2009년도 대북투자는 지원형태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초기 사업추진 및 관련 사업의 조사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4억 달러 수준이 투자될 것으로 보임.
 - ▶ 결론적으로 2009년도 국제사회의 대북투자는 4억~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도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는 식량 및 에너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1~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1월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하였고, 김 위원장은 이를 수락하였음.
 - ▶ 2005년 후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북한에 2,4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하였고, 2008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1,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가 북한에 전달되었음.
 - ▶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가 양국 정상의 방문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액수는 2,000만~3,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의 20~30%에 해당하는 수준임.
 - ▶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²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지원액은 2002년의 52.4%임.²¹⁾

16) 전년 무역액을 기준으로 산정.

17) Scott Synder(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Asia Foundation; 연합뉴스(2009,2,5).

18) 북한에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법제도 마련 등.

19) 시장경제원리 교육, 선진기술 전수 등.

20)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한 실제지출금액(Disbursement) 기준에 한함.

21) OECD(2009,2,12), QWDS.

14) 연합뉴스(2009,2,10).

15) 이석(2009).

- ▶ 중국의 대북 지원이 양국정상 방문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대북지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기불안과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지원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체 대북지원 규모는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2002년 수준(1억 8,926만 달러)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상황전개 2

- '상황전개 2'는 북·중 간 경제협력 규모가 다소 증대하거나 현 수준에 머무르고,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함.
 - 2009년도 북한의 무역은 2008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할 것에 영향을 받아 45억~5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고, 북한의 무역은 국제사회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 그 결과 2009년도의 무역총액은 2008년 수준이거나 연평균 13%의 증가율 수준에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도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인)투자는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2008년 10월에 발표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철도연결사업(TSR)과 2009년 2월 중국이 발표한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09년도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인)투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러나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수출입 관련 경제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제지에 대한 제재조치'는 그대로 적용되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09년도 대북지원 규모는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전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대북지원 규모는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감소에 따라 중국의 지원규모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2008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10~15% 이내의 증감률을 기록하고,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가 지난 후 주석의 방문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2009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0~15%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상황전개 3

- '상황전개 3'은 북핵문제가 심화되어 북·미 관계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북·중 간 경제협력 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함.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조치가 예상되어 북한의 무역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조차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수준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이 전면 봉쇄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2009년도 북한의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13~26% 감소한 32억~38억 달러 수준이거나, 2006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의 수준인 27억~3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인)투자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여 거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 대부분의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임. **KIEP**